

#### IV. 실용적인 믿음(Practical Faith)의 의미

구원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practical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practical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원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출애굽기에서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띄약 벌이 쏟아지는 사막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인가? 절망의 홍해 바다가 있었고, 사막에는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장대에 늦뱀을 달아 쳐다 보게 하시므로 불뱀의 독을 해독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겐 지금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가정 문제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practical 믿음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 14:1-10 을 읽어 봅시다.

민수기 13 :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 :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 :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민수기 14 :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 :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민수기 14 :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4 :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4 : 6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민수기 14 :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 :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 : 9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Bread For Us)**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수기 14 :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 Grasshopper Complex(메뚜기 열등감)**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위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장애가 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없다.

항상 안된다는 말로 일관하고 자신있게 사람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약점

그러면 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이런 험난한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모두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먹고 힘내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밥상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문제가 우리를 삼켜 Choke 되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practical faith** 를 가지고 기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option 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또(막 11:12-14 와 막 11:20-25 을 읽도록 한다)

V. 모든 사람은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하여  
오늘 이 단원을 시작할 때 믿음의 종류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정말 없이는 누구도 단 일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냐? 명예냐? 지위냐? 권세냐?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자신이냐? 신뢰의 대상이 결정되면 그 자신의 신뢰의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신뢰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하여 “무엇을 신뢰하고 살것이나” 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1. 무엇을 신뢰하고 살것이나?

마태복음 6:27-32 를 보니

마태복음 6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살것이나? 오직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외의 다른 것이냐? 돈이냐? 명예냐? 경험이나? 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암으로 투병한 세사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기환 씨 : 사망 (물리 치료에 의존)

이승재 씨 : 사망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다, 의사에게 의존)

나의 어머니 : 자궁암 선고(36 년전,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다, 하나님을 의존, 기도로 매달리다. 유일한 생존자)

### 2.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 (가치관의 문제)

마태복음 6:24 에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 뿐이지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Christ가 center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함없는 반석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됩니다. 신앙 생활의 시작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 갈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 :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 :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꺾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전에 자녀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NO. 1 Priority 라고 항상 가르쳐야 한다고. 그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자매님이 반대했습니다. 나는 이 반대를 듣고 꺾박 놀랐습니다. 그 자매의 말은, 교회에선 그렇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우리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꾸지람을 하면 듣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공동의 가치관이 생기고, 공동의 대화 주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들이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커서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며 신앙 생활을 합니다. 윤리 교육이 바로되니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하여 “무엇을 신뢰하고 살것이나” 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오직 하나님” 이라 할 때 Practical Faith 는 성장하게 됩니다.

### 3. Double Mind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도, 재물도, 다 귀히 여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능력도 다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Double Mind 를 가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열왕기상 3:1-2 을 읽는다)

열왕기상 3 : 1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상 3 : 2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된 것을 알고도,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바로와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여 왕비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인연은 alliance 로 intermarry(정략적 결혼)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웃의 강국과 결혼을 통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런 double mind 를 아주 싫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 하시고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하길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1:1-14 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선지자적 해석이 나옵니다. Double Mind 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처리(Discipline)가 따라 옵니다. 열왕기상 11:14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 4 Single Mind, 도구냐 신뢰의 대상이나?

반면에 Single Mind 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David 입니다.

그는 시편 118::8-9 에서 말하길<sup>1</sup>

시편 118 : 8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시편 118 : 9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고 하였습니다. 장수를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군대가 많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sup>1</sup>. Calvin 은 118 편을 다윗의 시로 보며 Talmud 과 Targum 도 같다 ;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 방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겐 용맹있는 장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방백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혼돈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사업에는 많은 헬퍼들이 있습니다. 세탁소만 하더라도 counters, Pressors, Spoters,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부리는 것과 비즈니스를 누구를 의지해 하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도구나 신뢰의 대상이냐?에 대해 항상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환란을 당할 때 그 빛이 들어옵니다.

다윗의 예를 다시 봅시다.

삼하 15:13-29 에 보면 그가 하나님만을 얼마나 순수히 의지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 : 18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육백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사무엘하 15 : 19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사무엘하 15 : 20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15 :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무엘하 15 :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사무엘하 15 : 23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믿음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25-26 절은 그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Total Commitment 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 :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무엘하 15 : 26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란은 평정되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 1.5 믿음은 준비가 없어도 되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사업에 대한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 사업의 문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떤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태권도 기술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동안 준비를 시키신 사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 애들에게 믿는 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 1.6 지혜가 없는 미련한 것이 믿음인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지혜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자 가게는 맥주를 곁들여 팔아야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가 잘된다고 하여 피자 가게를 사놓고, 맥주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술파는 것을 싫어하시니, 술을 팔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에서지요. 그 피자 가게는 결국 오던 손님들이 오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지요. 술을 팔지 않으려면 술을 안팔아도 되는 사업을 해야지, 술을 팔아야 하는 사업을 오픈해 놓고 술을 치워버리면 사업은 망되지요.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1.7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

실용적인 믿음(Practical Faith)은, 마치 수영을 하며 강을 건너는 사람의 예로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강을 건너 갈 때는 물살이 세지면 무서워 도중에 돌아 오지요, 그러나 누가 곁에서 보트를 타고 따라오면 중간에서 물살이 세어져도 그냥 건너 갑니다. 왜냐하면 곁에서 호위하는 보트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든든함이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VI. 그러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믿음을 가고 싶은 열망입니다.

왜 우리들은 강한 믿음을 원할까요?

강한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복,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능력과 축복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선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나’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 ‘자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본능아(원초아): 이것은 식욕, 성욕 등과 같이 사람이 태어 날 때부터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는 죄가 아니나 inordinate desire 가 될 때 죄가 됩니다.

자아 : 본능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성장해가면서, 환경과 교육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아는 현재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자연적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적이며 무의탁적입니다.

초자아 : 도덕적 윤리적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본능아와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 조화된 삶을 살아 가게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 자아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타락한 본능아와 자아는 성경에서 옛사람, 또는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아는 중생 후에 태어난 속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하는 것은 속사람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면 강건해 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 생활의 행복과 능력과 축복은 자라 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성장은 부모와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속사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3 : 6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 :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사람을 자라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양육하십니다.

에베소서 3 :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하질 못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 안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자라지 못합니다.

로마서 7 :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 :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란, 원초아와 타락한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이 속사람과 항상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갈등만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강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heart)을 보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가 없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이요, 기도는 속사람의 호흡이요, 교제는 속사람의 인격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요, 전도는 속사람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인정하시며 속사람의 강건을 #1 priority 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 1. 말 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 4:4)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말씀=rehma 柱;5-4-1-1).”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중생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rehma)을 먹어야 삽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육신을 위해 떡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rehma)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도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뒤가 짝 막힌 것 같은 때가 한참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하기가 무안할 정도로 자신의 모양이 말이 아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 갑니다. 광야 생활은 성장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Leader 가 되기 위해 꼭 지나야 할 관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명기 8:1-6 엔,

신명기 8 :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속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 속사람의 강건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를 먹이시며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 년 동안 광야의 갈을 건게 하시며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 : 4    이 사십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 :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느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 :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목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데 네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너의 행복과 능력과 기쁨이 나온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할 데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 2. 기    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 6:18)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됩니다.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을 통하여  
들어온 산소와 음식에서 섭취된 영양소가 화합하여 연소할때 energy 가 발생하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힘을 낼수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연소하여야만 열이 발생하고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할때 마음이 뜨거워 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뜨겁게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기도로 말미암는 능력(柱;5-4-1-2)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망하신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 산상에 계시고 9 제자는 밑에서 서기관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변론이 붙었습니다(막 9:14-29). 제자들이 서기관들 앞에서 간질하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 내려다가 못쫓아내고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떠나고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3. 교 제

요한일서 1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신앙 인격이 (어린 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선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의 부모와의 좋은 교제는 일평생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한사람의 일생을 판가름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편쟁이는 아편쟁이끼리, 거지는 거지끼리, 상류사회는 상류사회끼리, 거지와 상류사회는 같이 사귀지 않습니다. 즉 교제는 교제하는 사람과 동질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의 좋은 교제를 하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닮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 동질성으로 자꾸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성령님은 더욱 더 성령님을 우리를 통해 많이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 :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좋은 교제는 그 사람의 생활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님과 좋은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선 안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한 육신의 체험의 대상으로 삼아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넘어직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십년을 해도 그 사람 안에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른 보혜사(柱;5-4-1-3)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요 14:16)”

또다른 = 헬 allos. 앞에 관사가 붙으면 똑같은 다른 것을 가르킨다.

저는 -헬라 원어로는 인칭 대명사. 보통 영을 나타내는 spirit 은 중성명사로 취급함. 여기서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또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느낄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닮아 있을수록 성령님은 당신을 많이 나타내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생각과 말이듯이 성령님과의 교제의 수단도 생각과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생각이 거룩함으로, 말이 거룩함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성령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꼭 차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은 불신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말로 “안된다, 틀렸다” 하며 늘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 4. 전 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 고전 2:4 )

요한복음 1 :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 :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동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아이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의 운동은 전도입니다. 전도 못하는 능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면 전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 1:8 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power)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란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좇아 들은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가자” 하는 것이 전도인줄 압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의 입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그 보고 들은 것이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위에 높이 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집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